“얼었던 마음도 우쿨렐레 소리에 사르르”

여수 문수복지관실버 프로그램 ‘오작교’

전남 사랑의열매 지원 3월부터 운영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16명 참여
축제 무대 올라…고립 완화 등 성과
“인건비 등 지자체 지원 뒷받침 절실”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3월부터 ‘음악으로 세상을 잇는 오작교’ 실버 프로그램을 운영, 최근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은 지난 6월16일 여문텃골문화축제에서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합동공연 모습.

“우쿨렐레 그거 자그마하니 소리가 참 예쁜 거야. 친구들이랑 띵가띵가 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

65세 이상 여수 지역 어르신 16명이 참여한 음악 프로그램 ‘오작교’가 약 1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운영한 ‘음악으로 세상을 잇는 오작교’ 실버 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오작교는 음악 활동을 매개로 자아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월 참여자를 모집해 3월부터 본격 운영됐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많아 초기 모집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복지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해 16명이 모였다.

이들 중 남성은 ‘음악하는 신사(견우)’팀으로 우쿨렐레를, 여성은 ‘음악하는 숙녀(직녀)’팀으로 오카리나를 배우며 매주 1회, 총 28회에 걸쳐 수업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악기가 낯설고 연주가 서툴러 망설이던 어르신들도 점차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며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프로그램 후반에는 배운 실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르신들은 여문텃골문화축제와 둥둥골 어울림 한마당 등에서 총 3차례 무대에 올라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원청자(81·여)씨는 25일 “처음엔 뭘 이런걸 하나 싶었지. 근데 우쿨렐레 소리와 친구들 웃음소리에 외로웠던 마음이 스르르 녹았다”며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웃었다.

장용석(75)씨도 “퇴직 후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친구 권유로 참여했는데, 어릴 적 악기 하나 배워보고 싶던 꿈을 이루게 됐다”며 “이제는 무대에 서는 게 즐겁다”고 전했다.

복지관 측은 오작교 프로그램이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완화, 자존감 회복, 관계 형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역할 회복 등 삶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참여 어르신 16명의 우울감 척도(GDS-SF-K)는 사전 총점 173점에서 사후 70점으로 103점(59.5%) 감소했다.

다만 전남 사랑의열매 지원이 매년 이어지기 어려워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임봉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의 삶에 희망을 잇는 따뜻한 연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청년 고수본·유민서·최혜지씨 ‘대한민국 인재상’

AI 신약·에너지 촉매·문화기획 등
각 분야 성과 인정 지역발전 기여

고수본

유민서

최혜지

광주시는 25일 “지역 청년 고수본·유민서·최혜지씨 등 3명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 연구, 지역 문화 기획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주관으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역 심사, 교육부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쳐 고교·청소년 분야 40명과 대학·청년 일반 분야 60명 등 총 100명을 선정, 상장과 상금(국무총리상 1명 300만원·장관상 99명 200만원)을 수여했다.

고수본씨는 인공지능(AI) 기반 단백질 설계 활용을 통한 신약 개발을 연구해 ‘DTMBIO 2024 국제학회’에서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AI 기반 단백질 면역원성 예측 기술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면역치료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유민서씨는 광전기화학 질소 환원 반응 촉매 개발과 관련해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주저자 논문 2편·국내외 학회 발표 6회·특허 2건 등 연구실적을 쌓았다.

최혜지씨는 광주 청년클래식음악단체 ‘아르플래닛’을 창단해 대표로 활동하며 14회의 공연을 기획·연출했다. /변은진 기자

코코넛, 학폭 예방 ‘청소년문화콘서트’ 성료

2025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성을 품은 청소년 문화콘서트’가 지난 23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성료했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사)코코넛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골약중학교와 중동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계문화공연과 연극, 인성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돌아보고, 배려와 공감의 가치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카운터어택의 공연 ‘성세홍자’로 시작됐다. 이어 정동근 강사가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를 주제로 무대공연 감독과 안무가로서의 현장 경험을 전했고, 광주 지역 연극 전문단체 엔터테인먼트 광이 연출을 맡은 연극 ‘트루컬-나는 반딧불’도 펼쳐졌다.

김현정 강사는 ‘리더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하지?’를 주제로 강연했고, 김 강사의 강연에 앞서 카운터어택은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담은 ‘To the sky’ 무대도 선보였다.

학생들은 공연과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이 개인 간 갈등에 그치지 않고, 소통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박희중 기자

박기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 설립자 별세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 겸 명예이사장인 성인(省仁) 박기인 박사가 지난 24일 오전 12시26분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故) 박기인 명예이사장은 1934년 12월24일 전북 전주에서 부친 박병옥 선생과 모친 이애주 여사 사이에서 2남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으며, 2015년 별세한 고(故) 이화성 박사와 함께 1978년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설립했다.

박 명예이사장은 1968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고, 1995년 필리핀 아담슨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학위, 2003년 대만 문화대학교 상학부문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1988년, 1995-2025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호남대학교를 명문 사학으로 성장시키는 데 온 열정을 쏟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 한민족지도자 대상, 2006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박상학, 장녀 박경희, 차남 박상건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이사장, 삼남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이 있다.

장례는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거행된다. /박선옥 기자

목포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목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8월 ‘2025년 을지연습’ 우수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2관왕’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10월28일 목포시는 세라믹응용센터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붕괴’라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목포경찰서와 목포소방서 등 17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70여명이 참여해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평가단은 초기 상황 전파부터 수습·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상황실의 유기적인 연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신속한 소통 체계를 높게 샀다.

김재진 목포시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 사랑의열매, ‘광산구 나눔히어로’ 인증패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열매)는 “최근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광산구 나눔히어로 32인’ 후원금 및 인증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광주 사랑의열매가 올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우리동네 나눔히어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인증패를 수여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나눔히어로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총 32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으며, 이로써 광주 지역 누적 나눔히어로는 224명(개소)으로 늘었다. 기탁된 성금은 광산구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제길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나눔히어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여수도시관리공단 ‘상생경영 우수’ 재인증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상생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사회 상생’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난해 전국 시설관리공단 최초로 해당 인증을 따낸 데 이어 올해도 재인증에 성공했다.

자체 보유 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운동 처방 서비스’ 등 지역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여수=김진선 기자

문영수 법무사, 담양 수북면에 연탄 기탁

담양군 수북면은 “최근 바르게살기운동 담양군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문영수 법무사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연탄 1천장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북면 출신인 문 법무사는 올해로 22년째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기탁을 이어오며 고향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문 법무사는 “연탄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농협 나주시지부,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탁

농협 나주시지부는 25일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3일 사회복지시설 지원 성금 350만원을 나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제해중 농협 나주시지부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기관으로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준 농협 나주시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인사

광주 남구 ◇4급 승진 ▲총무과 김진옥 ▲복지정책과 홍연화 ▲총무과 정운영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5급 승진 ▲회계과 김기한 ▲민생경제과 임국현 ▲일자리정책과 박귀환 ▲주민자치과 조선주 ▲민주평화인권과 김영진 ▲복지정책과 주정희 ▲감염병관리과 박서연 ▲도시계획과 남상래

부음

▲박기인(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설립자 겸 명예이사장)씨 별세, 상학·경희·상건(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이사장)·상철(호남대학교 총장)씨 부친상=빈소 호남대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 영결식 28일 오전 10시30분 호남대 문화체육관(062-940-5878).

CMYK